

【 해외금융 뉴스: 중국 】

보험업계, 신 회계준칙 적용으로 보험료 규모 감소

- 중국 보험업계는 작년 말 발표된 <보험계약 상관회계 처리 규정>에 따라 올해부터 '신 회계준칙(新会计准)'을 적용한 결과, 수입보험료 규모가 과거 회계기준으로 산정한 것에 비해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.
 - 중국 재정부회계사(会计司)와 보험감독관리위원회 재무회계부가 공동 발표한 상기 규정에 따르면, 올해부터 재무보고서 작성 시 혼합계약에 대한 계약 분리, 중대보험위험 측정, 보험계약준비금 산출 등의 규정을 적용하는 새로운 회계 준칙을 준수해야 함.
 - 이에 따라 중국 3대 인보험(생명보험에 해당) 회사인 중국생명, 중국핑안보험, 타이핑양생명의 올해 1월 수입보험료는 과거 회계준칙으로 계산했을 때보다 각각 약 10%, 30%, 14% 감소한 것으로 추산됨.
- 신 회계준칙 적용 후 수입보험료가 감소한 것에 대해 업계는 계약 분리와 중대 위험 측정으로 인해 일부 보험 계약이 수입보험료로 산정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음.
 - 신 회계준칙에 따라 회계장부 작성 시 보장성보험 및 단기보험, 배당형보험은 전액 내지는 거의 대부분이 수입보험료로 산입이 가능하지만, 만능형(유니버설보험)의 경우 위험측정 시 중대위험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계약 분리를 통해 일부만 수입보험료로 인정됨.
 - 투자연동형 역시 반드시 계약 분리를 통해 일부만 수입보험료로 산입되기 때문에 중국핑안보험과 같이 만능형 및 투자연동형 상품의 판매 비중이 높은 회사들은 이전 기준으로 측정할 때 보다 수입보험료의 축소가 불가피함.
 - 그러나 기록상 수입보험료가 감소하더라도 기준만 달라졌기 때문에 보험회사의 펀더멘탈에는 이상이 없다는 것이 업계의 평가임.
 - 한편, 순자산은 신 회계준칙에 따라 생명보험 준비금 평가이율을 4%로 계산할 경우 이전 기준보다 중국생명과 타이핑양생명은 각각 47%, 4% 증가한 반면, 중국핑안보험은 12% 하락한 것으로 추정됨.

(중국증권망, 3/5)